



2면

“그야말로 경제 戰時 상황”  
文대통령, 정책 집행 속도 강조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음 4월 7일) 제2527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 송 지사, 내년 예산확보 세일즈행보

## ‘방역’에서 ‘민생’으로

지휘부 세종청사 방문  
해수부 김 차관 등 면담  
7조원 이상 반영 ‘혼신’  
5월에도 중앙부처 받품

전주시, 코로나비상대책본부가동... 3개 대책반운영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하여 과기부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면담하고, 전북에 국립과학관 건립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과 홀로그램 실증개발지원센터 건립 등을 위한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세종청사를 찾아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면담하는 등 3년 연속 7조원 이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나섰다.

먼저,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만나 2025년까지 ▲새만금 신항만 2개선 석 부두 동시개발 등 물류 인프라 적기 구축을 위해 기반시설 구축비로 1,029억원 반영 ▲선착장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항내 수심 부족으로 어선의 상시접안이 불가하여 어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5억원 ▲군산조선소 기동중단에 따른 협력업체 위기극복을 위한 업종 전환(풍력/태양광)지원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와 중소형 선박 국내·외 발주증가 등 대형구조물 수요에 대응하고 작기 납품을 위해 군산항 7부두 대형구조물 물류센터(아직장) 구축에 필요한 설계비 및 사업착수비로 80억원 반영 등을 피력했다.

경상 충청)중 유일하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전라관에 대한 미래 관광전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라전년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7억원 ▲25년간 국내 최초 세계비엔날레 개최 세계 서예계의 국제적 위상과 인적 네트워크 및 기증작을 1,500여점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5억원 ▲전북지역은 영화·영상촬영지, 세트장에서 ‘기생충’ 등 우수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으나 체험·실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새만금 챔버리 부지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로 15억원 등 반영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시기가 한 달여 남은 5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5월 1일, 7일에도 농식품부, 복지부 등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며, 5월 4일, 18일에는 우방기 정부부처, 13일에는 최용범 행정부

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하여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지역 연고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

회를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최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체계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중심의 총괄대책본부를 경제, 복지, 마음건강 등의 민생을 챙기는 비상대책본부 체계로 전환 운영한다. 이는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고용유지·안정 정책이 핵심이며, 촘촘한 복지지원과 마음치유 정책을 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삶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다. **〈관련기사 4면〉**

시는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분야별로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 총괄대책본부를 위기극복 비상대책본부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해고없는도시대책반 △위기극복 지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8개 대책반을 구성했다.

우선 시는 고용유지와 안정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해고없는도시대책반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 중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회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공공요금 감면, 대출 및 이차채권 특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기극복대책반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 5개월간 생계·의료·주거 지원책을 추진하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로 50만원까지 대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학교시설 방역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등 5개 분야에서 약 1000명 규모의 단기 공공일자리도 제공키로 했다. 경제대책과 복지대책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시민들의 마음 치유를 돕기 위한 마음치유대책반의 경우 실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를 운영하고 음악과 미술을 통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체험 농장 운영 등 원예치유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고용 유관기관과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發) 대항하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감하기 위해 하고 있는 도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산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극찬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이번에 본격 가동되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책본부를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의 새로운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5월 1일·4일자 신문 읽는다.

## “올 수능 난이도 조정해야”

전북교육청, 고3 수험생 불리함 최소화 방안 제시

전북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능 절대평가 영역 난이도 하향 조정’, ‘위계가 있는 교과에서의 고난도 문항 출제 최소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에서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중심의 평가’ 등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3 학생이 재수생과 비교해 유불리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

북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고3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휴업연장과 온라인 개학 등으로 대입 전형에서 재수생과 비교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특히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 수능에 대비할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학습시간이 부족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파행 운영 등으로 수능 시험 적응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학생의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시 전형에서도 고3 학생의 불리함을 거론했다. 우선 우려되는 점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학생부 기록이 빈약해질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동아리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러한 고3 수험생의 절대적 불리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입의 중요한 전형요소인 수능 난이도 조정과 학생부 평가 방법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수능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고난도 문항 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 JJC전북

YouTube, kktv, NAVER TV, Dd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송주빌딩5F